

퓨처켄, GE헬스케어와 방사성의약품 공급계약 체결

- ▶ 미국 시장에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
- ▶ 프로스타뷰와 생산용 소모품 카세트 공급

<2019-12-12>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켄은 세계적인 의료 기술 및 생명 과학 기업인 GE헬스케어와 방사성의약품 및 카세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.

이번 계약을 통해 퓨처켄은 전립선 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와 소모성 원재료인 카세트를 GE헬스케어에 공급하고 GE헬스케어가 퓨처켄 방사성의약품을 판매한 금액의 64%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.

방사성의약품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방사성의약품 원료와 소모품 모듈인 카세트, 생산플랫폼이 필수로 필요하다. GE헬스케어는 글로벌 1위 방사성의약품 생산플랫폼인 FASTlab™ 개발해 전세계에 제품을 판매 중이며, 이번 퓨처켄과 계약을 통해 퓨처켄의 방사성의약품과 카세트를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.

퓨처켄은 이번 계약을 통해 퓨처켄의 방사성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판매 채널을 넓히게 되었으며, GE헬스케어는 퓨처켄의 다양한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어 FASTlab™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해 양사 모두 윈-윈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퓨처켄 관계자는 “퓨처켄은 자체 개발한 자동합성장치와 카세트를 보유하고 있어 GE헬스케어와 카세트를 제공하는 공급계약이 쉽게 성사 될 수 있었다”며 “글로벌 1위 방사성의약품 생산 플랫폼인 GE헬스케어의 FASTlab™을 확보해 향후 해외 기술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한편 퓨처켄은 현재 파킨슨 진단용 피디뷰와 전립선 암 진단용 프로스타뷰의 미국임상을 준비하고 있다.